

바우만(Bauman)의 근대성 이론을 통한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유동성 분석*

김 기 덕⁺

(순천향대학교)

최 명 민⁺⁺

(백석대학교)

[요 약]

최근 한국사회복지실천에 등장한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현상들이 기존의 이론이나 관점으로 설명되지 못하면서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과 본질에 관한 의문과 더불어 사회복지실천이 시대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과 반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Bauman의 유동적 근대성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복지실천의 현재 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사회복지실천에서도 급속한 변화와 시대적 복합성으로 인한 혼란, 빈곤에 대한 비중 감소와 소비논리의 팽배, 영역의 세분화와 문제해결의 개인화, 관료제와 관리주의의 강화에 따른 실천성의 약화, 사회복지 정체성과 윤리성에 대한 요청 등 유동적 근대사회 특유의 현상들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대응은 유동적 사회에 부합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존의 고체 근대 시대의 전략과 수단을 더욱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실천이 당면하고 있는 유동화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가의 자율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바우만, 사회복지실천, 유동적 근대사회, 유동성, 정체성

* 본 논문은 순천향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근대성에 대한 탁월한 통찰로 사회과학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는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의 유동적 근대성(Liquid Modernity) 논의가 한국사회복지실천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적절한 대안적 패러다임 혹은 이론 체계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은 정형화된 접근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근본적인 복잡성(complexity)을 가지고 있으며(Thompson, 2010), 이러한 복잡성은 사회복지실천을 본질적으로 절충적(eclectic) 전문직(Houston, 2002), 중간에 끼인(caught in the middle) 존재(Thompson, 2005), 경계의 전문직(김기덕, 2013)으로 만든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이 보여주는 양상들은 이러한 복잡성을 넘어 매우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 실천범주와 유형으로 포괄할 수 없는 대상, 영역, 실천방법들이 등장하고(유동철, 2012a; 최옥채, 2012), 전통적 실천관계론의 유용성이 불확실해지며(유영준, 2009a; 김성천, 2010; 양난주, 2010), 실천현장에서는 근대적 측면과 전근대적인 측면과 더불어 탈근대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최명민, 2011). 또한 실천에 대한 기본 접근에 있어서도 증거기반실천에 대한 관심이 사회복지실천의 규범성에 대한 요구와 중첩되고 있다(김기덕, 2013). 이러한 혼란은 고스란히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격제도 그리고 교육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김미옥 외, 2013; 정종화 외, 2013), 이러한 가운데 사회복지실무자들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와 자존감의 상실(최성재 외, 2013), 사회복지사의 소진, 정신적 위기의 팽배와 자살(윤명숙, 2013) 등의 문제까지 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용자참여주의나 당사자주의에 대한 목소리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이봉주, 2013).

그러나 기존의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들은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이 보이는 이러한 혼돈과 혼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하기에는 한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생태체계론과 임파워먼트 등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실천패러다임은 그간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인간 주체에 대한 설명부재, 역사성과 방향성 부재, 추상성과 기계성, 구조적 요인을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 등으로 단편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Wakefield, 1996a; 1996b; Kondrat, 2002; 우아영·김기덕, 2013; 최명민·김기덕, 2013). 그 대안으로 탈근대주의(노충래, 2011), 생태주의(김형준·한동우, 2010)와 함께 최근 동양철학적 접근까지 검토되고 있으나(김동국, 2008; 김기덕 외, 2014; 최명민 외, 2014), 한국사회복지실천이 놓여 있는 근대사회의 특성과 변화양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을 심층적으로 조망하기에는 아직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바우만의 유동적 근대성(Liquid Modernity) 논의는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적절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유동적 근대화론은 무엇보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대표되는 근대사회의 특성을 기존의 탈근대성을 포함하여 확대된 유동성 개념을 통해 보다 역동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국가, 가족,

지역 공동체가 견지했던 유대가 용해되면서 개인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의 불안한 모습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고 이러한 유동성이 보여주는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통찰력 있게 그리고 있다(Blackshaw, 2005; Lee, 2005). 뿐만 아니라 근대성에 대한 인식 위에서 탈근대성을 통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논의를 이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탈근대성이 놓치고 있는 도덕과 윤리에 대한 논의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논리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 유동하는 근대성이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개인화가 자율성의 증대와 불안의 증대로 상호 모순적으로 대치하는 지점 또한 적절하게 보여준다(송재룡, 2000; 임원희; 2007).

Bauman의 사회이론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위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들이 유럽 학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Abrahamson, 2003; Hugman, 2003; Webb, 2006; Ferguson, 2004; 2008; Smith, 2011), 한국의 사회복지실천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도 바우만이 주장하는 현대사회의 유동성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혼란과 애매모호함의 근본 원인과 갈등이 바우만의 유동성 이론으로 충분히 조망될 수 있는지를 한국의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최근 동향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런 측면에서 바우만의 이론체계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위상을 검토하려는 본 연구는 그간의 사회복지실천패러다임이 사회복지실천을 둘러싼 현대사회의 거시적 사회제도와 구조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는 비판(Garrett, 2012)에 대한 이론적 대안의 제시이자 동시에 사회복지실천을 사례로 하여 진행되는 바우만 이론의 활용성에 대한 검증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어지는 장에서 사회복지실천을 조망했던 기존의 패러다임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이 갖추어야 할 미덕을 모색하여 본다. 3장에서는 바우만의 유동적 근대화이론이 가지고 있는 사회이론으로서의 의미와 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4장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의 최근 변화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바우만의 이론체계 가진 사회복지실천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해서 Bauman의 논의가 사회복지실천에 미치는 함의에 기초하여 유동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전망해 볼 것이다.

2.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의 검토

1) 기존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의 한계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이 여타 대인전문직 영역과 차별화되는 고유의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패러다임으로는 '생태체계관점'을 들 수 있다. 질병이나 심리요인 등 인간을 구성하는 일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타 학문분야와 달리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생태체계관점에 근거하여 '환경 속 인간'이라는 구도 위에서 인간과 그를 둘러싼 사회를 심리사회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한다. 이렇듯 생태체계관점은 사회복지실천의 개입 대상과 지점에 대해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시야를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주체로서 인간의 본질이나 체계들 간 상호작용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어서 미시적 인간체계와 그 내적 기체에 대한 설명도, 보다 큰 사회 환경으로서 거시적 권력체계의 역동도,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갖는 역사성도 충실히 설명하지 못 하는 기계적이며 정태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Kondrat, 2002; Wakefield, 1996a; 1996b; 최명민·김기덕, 2013; 최명민, 2014).

이에 비해 '강점관점'은 생태체계관점의 환경 속 인간이라는 구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자연과학 공식과 같은 기계적이고 객관적인 논리와는 차별성을 보이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이다. 강점관점은 개인을 주관적 인식의 주체이자 여러 가능성과 자원을 가진 독특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 체계의 발전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관점은 주로 개인의 문제나 결함에 초점을 두고 그 문제해결이나 치료에 치중하는 다른 대인서비스직의 학문적 배경과 입장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차별적 특징을 규정해 준다(Saleebey, 1996). 그러나 강점관점은 왜 어떤 대상은 강점이나 자원이 결여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이런 고통이 어디로부터 유래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 한 채, 어떻게 하면 강점을 강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미시적 차원의 강점을 강화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이나 억압과 같은 보다 거시적 측면의 문제를 이해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틀을 제공해 주지는 못 한다.

이러한 기존의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이 갖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시와 거시를 아우르는 분석틀로서 검토되어 온 것이 기든스(Giddens) 등의 '성찰적 근대화론'을 활용한 접근이다(Kondrat, 2002; 최명민·김기덕, 2013). 성찰적 근대화론은 성찰성을 통해 의식화과정을 설명하고 구조화이론을 통해 인간과 환경 간 상호관련성을 구성하는 기체와 동학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태적이고 기계적인 생태체계관점이나 미시성에 초점을 둔 강점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분석틀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성찰적 근대화론 역시 사회구조의 왜곡이나 체계적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는 제한적이며 따라서 사회비판을 토대로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인 규범성이나 휴머니즘과 같은 지향성의 문제를 다루지 못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최명민·김기덕, 2013).

2) 생태체계관점을 통해 본 대안적 실천 패러다임의 조건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복합적인 사회복지실천이 유동하는 현대사회에서 드러내 보이는 다양하고 양상들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론적 분석틀(theoretical framework)은 어떠하여야 할까? 사회복지실천의 현실을 진단할 대안적 분석틀은 앞서 언급한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미덕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은 무엇보다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후기 근대사회의 시대적 변화나 흐름이 사회복지실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동태적 관점을 견지하여야 한

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의 맥락이자 환경인 근대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근대성의 변화가 사회복지실천을 어떻게 규정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사회복지실천의 변화와 동향이 이해 가능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한국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등장하는 전근대성과 근대성 혹은 탈근대성의 동시성에 대한 해명 역시 가능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실천이 보이고 있는 미시성 혹은 개인의 심리적 편향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고 거시 사회와 제도의 영향력을 직접 포섭하여 논의할 수 있는 통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실천 특히 미국식 사회복지실천이 가진 심리학적 편향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학 이론의 유용성과 도입 필요성 역시 강하게 논의되고 있다(Garrett, 2012). 이를 반영하듯 사회복지실천을 논의하는 최근 입장들은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는 현대사회의 특성과 구조 그리고 담론체계를 직접 포괄하여 분석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보인다(Kondrat, 2002; Healy, 2005; Webb, 2006).¹⁾

셋째, 사회복지실천의 본질규정인 윤리와 규범성에 대한 논의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고유의 규범적 본질인 휴머니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근대적 규범의 억압성과 관련된 탈근대적 입장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논의 구조와 내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탈근대주의에 의한 근대적 규범의 억압과 권위의 해체는 그 과정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나 급진 자유주의로 흘러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적 차별과 사회적 양극화현상에 맹목적일 수 있으며 탈근대주의자에 의한 지나친 자유주의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전략적 제휴나 연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실천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김기덕,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천 패러다임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대안으로서 바우만의 유동적 근대성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바우만의 유동적 근대성 이론

1) 유동적 근대성 이론의 성격과 특성

(1) 근대성, 탈근대성, 고체적 근대성, 유동적 근대성

바우만 역시 현대사회를 논의하는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분석의 출발을 근대성(modernity)에서 시작하지만, 그는 현대사회의 본질을 근대성과 탈근대성(postmodernity)으로 엄격히 구분한 후 이들 사이의 불일치와 비타협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학자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²⁾ 바우만은 유동적 근대성(liquid modernity)이라는 독창적 개념을 통해 근대성

1) 최근 들어 한국의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주체와 구조를 통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대안적 관점을 사회학의 이론을 통해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지만(우아영·김기덕, 2013; 최명민·김기덕, 2013), 이들 연구들은 아직 분석틀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현실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현대사회의 특성을 탈근대로 규정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근대성과 뚜렷이 구별되는 탈근대적 특성을

과 탈근대성의 균열을 극복하며 현대 사회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새로운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이일수, 2005). 물론 바우만이 과학, 합리성, 질서, 규칙 등을 핵심으로 하는 모던적 기획의 한계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근대주의자들과 자신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동시에 탈근대주의자들이 보이는 다원성과 상대성의 지나친 강조로 인한 회의주의나 냉소주의에도 머물지 않는다. 바우만에게 있어 탈근대적 조건이나 특성은 근대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근대의 지배에 의해 사라지고 여백화되었던 담론의 공간을 부활시킴으로서 근대적 기획의 한계를 내재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성찰적 계기이다(송재룡, 2000).³⁾ 그러므로 바우만에게 있어 탈근대성은 근대성이 생명을 다하고 시작되는 새로운 국면 혹은 근대성과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사회의 특성이 아니라 근대성이 추구하려던 계몽주의적 기획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시대적 징표로 간주된다(Cantell and Pedersen, 1992).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근대성과 탈근대성은 시간적 차원의 분절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근대성이 드러내는 특성과 본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정확히 말해 바우만은 탈근대적 징표를 통해 근대성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이로써 근대성의 기획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성의 원래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추구한다. 따라서 바우만은 근본적으로는 비판적 근대주의자임과 동시에 근대가 추구하고자 했던 인간해방의 목표를 여전히 견지한다는 측면에서 급진적 인본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근대성과 탈근대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기초한 바우만은 근대성의 본질과 역동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근대성 전체를 고체 근대성(solid modernity)과 유동적 근대성(liquid modernity)으로 세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근대성은 고체 근대성의 단계를 지나 유동적 근대성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이일수, 2005). 고체 근대성과 유동적 근대성의 차이를 다소 거칠게 구분하자면, 고체 근대사회는 전근대 이후 합리성과 과학성을 근간으로 노동과 자본의 강한 결속과 복지국가라는 고정체(solidity)를 통해 혼돈의 사회에 질서를 부여했던 시기를 말한다. 하지만 1970년대와 80년대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자본의 초국적 이동, 노동과 자본의 결속약화, 소비사회의 등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복지국가의 쇠퇴, 공적 영역의 축소 등의 현상은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과거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한 마디로 전통적인 고정체(solidity)의 약화와 동시에 유동성(liquidity)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유동적 근대사회는 고체사회의 연대와 결속이 용해되면서 무질서와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개인화의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위험들이

제시하고 이를 통해 근대성을 해체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이들은 근대사회와 탈근대사회는 지식의 정당화방식(Lyotard), 실재와 모사의 구별방식(Baudrillard), 인식론적 토대(Foucault), 소비방식(Featherstone) 등에서 명확히 구별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근대가 추구했던 보편적인 지식과 삶의 토대가 해체되고 다양화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 3) 탈근대적 조건을 통해 근대성의 기획을 해체하는 흐름과 달리 근대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능동적 성격을 부각시켜 근대적 기획의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하는 일군의 사회학자들의 주장을 흔히 성찰적 근대론(reflexive modernization)으로 부르고 이러한 흐름의 대표적 학자로 벡(Beck, U.), 기든스(Giddens, A.), 부르디외(Bourdieu, P) 등을 든다. 물론 근대적 기획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Bauman 역시 크게는 성찰적 사회학자로 분류될 수 있겠으나 근대적 기획의 가능성과 주체의 역할 등에서 이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기든스 이론의 성찰적 특성이 가진 사회복지적 의미에 대해서는 최명민·김기덕(2013)을 참조하고, 벡과 바우만이 주장하는 근대화론의 비교에 관해서는 손경미(2013)를 참조하시오.

등장하는 불안과 혼돈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2) 유동성과 유동적 근대 사회

유동성(fluidity)은 고체와는 구별되는 액체(liquid)나 기체(gas)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의미한다(이일수, 2005: 7).⁴⁾ 고체와 달리 액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외부의 자극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의 모양을 바꾸어 나가며 고정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흘러내리는 성질을 갖고 있다. 유동성을 가진 물체는 자신의 모습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저항하지 못하는 대신 이동성과 가벼움을 미덕으로 상황에 맞추어 빠르게 변모하고 적응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동적 근대사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모하는 가벼움과 변형을 본질적 속성으로 가진 사회를 의미한다.

바우만이 근대를 고체사회와 유동적 사회로 구분하였다고 해서 유동성이 후기 근대사회만의 고유한 특성인 것은 아니다. 사실 근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유동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근대성은 시작부터 '견고한 것들을 녹이는 것'을 통해 시간에 저항하고 공간에 고착되어 있던 전근대성을 용해시키는 것을 주된 과업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중세를 지나 새롭게 건설되던 경제체도와 정치체도에 걸림돌이 되던 전근대적 고정체들을 녹여 나가는 동시에 이렇게 생성된 빈자리를 새로운 고정체로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근대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다. 따라서 근대 사회의 모습은 유동화와 고정체의 구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인다. 중세사회의 붕괴 이후 도래한 혼돈과 무질서에 새로운 질서와 규율을 부여하고자 했던 근대사회는 합리적인 인간 활동에 저해되는 전통적 관습과 의무는 빠르게 용해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인간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고정체 즉 노동과 자본과의 강력한 연계와 아울러 규율과 관리를 위한 근대국민국가는 확고하게 고체화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이일수, 2005).

하지만 유동적 근대는 고체적 근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유동적 근대 사회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유동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 기존의 고체 근대가 구축했던 고정체마저 용해시켜버린다. 다시 말해 근대사회의 초기단계인 고체 근대의 경우 유동성과 고체성이 일정정도 교차하며 개인 선택의 자율성과 이를 지지하는 집합체 혹은 고정체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전근대의 혼란에 정치적 질서를 부여하던 국민국가의 확립, 노동과 자본의 공고한 결합, 강고한 가족 체계와 지역사회 등은 대표적인 고정체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복지국가야말로 고체 근대사회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동적 근대사회에서는 유동화의 빠르고 강력한 힘이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를 녹여내고 있다. 지구화로 인한 자본의 초국적 움직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수단으로 인한 공간과 시간의 한계 파괴, 노동과 자본의 결합 약화, 전통적 지지체계와 지역사회의 붕괴 등으로 인해 촉발된 유동화는 개인의 선택들을 집단적 기획이나 행동들과 연결시켜 주던 대부분의 유대관계를 전면적으로 용해시키고 있다(이일수, 2005: 14).

4) 바우만은 처음에 액체와 기체의 특성을 통해 유동성(fluidity)을 설명하지만 이후 액체의 특성을 주로 하여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동성을 액체적 유동성(liquid)으로 사용한다(이일수, 2005). 이러한 차원에서 일부 번역본에서는 유동적 근대를 액체 근대라는 용어로 번역하기도 한다.

결국 유동적 근대성이라는 시각(視覺)은 그간 고체 근대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근대적 프로젝트의 문제와 한계를 명확히 표출하는 동시에 탈근대적 시각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았던 근대적 문제들인 양극화, 사회정의, 윤리적 문제들을 온전히 확인해 줌으로써 탈근대와 근대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위상을 부여받게 된다.

2) 유동적 근대사회의 특징

고체화와 유동성의 매트릭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유동적 근대사회는 고체 근대사회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 절에서는 유동적 근대사회의 특징을 크게 소비주의의 등장과 전통적 복지국가의 쇠퇴, 공동체의 약화와 개인화의 증대, 윤리적 무관심과 규범성의 쇠퇴, 관료주의와 관리주의의 강화, 전문가와 지식인의 위상변화 등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⁵⁾

(1) 소비주의의 등장과 전통적 복지국가의 쇠퇴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유동적 근대가 보이는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고체근대가 생산자 중심의 사회였다면 유동적 근대는 소비자 중심의 사회라는 것이다. 전 지구적 자본화, 정보와 지식산업의 발달로 인한 노동과 자본 간 결속의 약화는 자연스럽게 노동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통제되던 사회를 소비중심 사회로 전환시킨다. 생산자 중심 사회에서 소비자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이제 사회구성원들은 소비자로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유동적 사회가 부여한 자율성과 개인성을 만끽하는 반면, 고체 근대사회에서 이뤄지던 구성원들 간 상호신뢰와 헌신의 가능성은 점점 사라진다(이수영, 2004). 노동현장의 규율과 통제의 사회적 확대로 작동되던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으며 이제 자본은 소비자의 선택과 소비를 직접 조종하면서 간접적으로 노동을 통제하게 되고 사회 통제의 사회적 비용은 현저히 줄어든다(홍지수, 2013: 33-53). 다시 말해 규율과 억압으로 통제되던 고체사회는 매혹과 자율의 유동적 사회로 바뀌게 된 것이며(임원희, 2007: 621-625), 이는 누구나 주체적 자율성의 신념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세계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이유선, 2007: 209). 따라서 유동적 사회의 구성원은 이제 노동능력의 유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양분되고, 소비능력이 있는 구성원만이 소비를 통해 자신의

5) 바우만은 자신이 주장하는 유동적 근대성의 특성, 구조, 변화 요인 등을 엄밀한 분석모델과 같은 설명도구를 통해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사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대표적 저서들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할 수 있다. 유동적 근대성의 대표저서인 액체근대(이일수, 2005)를 보면 바우만은 유동적 근대를 규명하는 조건들로 해방, 개인성, 시/공간, 일,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저서에서 바우만은 우리의 존재방식이라는 장을 통해, 노동, 시/공간, 자유와 안정, 도덕적 책임과 윤리성, 개인화와 정체성 등을 다루고 있으며(홍지수, 2013), 유동성 시대의 노동과 소비, 빈곤을 다루는 저서(이수영, 2004)에서는 소비, 복지국가의 몰락, 새로운 빈곤, 도덕적 의무를 가장 중요한 사회적 특징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동적 근대사회의 특성을 복지국가의 쇠퇴와 소비주의의 등장, 공적영역의 쇠퇴와 개인화의 증대, 윤리적 무관심과 규범성의 쇠퇴, 관료주의와 관리주의의 강화, 전문가와 지식인의 위상변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욕망을 충족하고 이를 통해 자유와 정체성을 느끼게 된다.

사회구조 측면의 또 다른 큰 변화는 소비자 중심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진행된 전통적 의미의 복지국가의 쇠퇴이다. 사회의 통합기제로서 노동윤리의 쇠퇴, 노동자 집단의 사회적 역할 약화와 소비자 중심의 개인 윤리의 등장은 사회 구성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집단적인 비용을 추구하던 방식을 포기하고 이를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화의 확장과 소비윤리의 친화성은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토대를 약화시킨다. 복지국가시대의 사회조직과 기구는 자신이 담당하는 인구집단에 대해 노동윤리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교정하여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소비를 통해 생산영역을 통제하게 된 유동적 근대사회에서는 이제 이러한 산업예비군을 양성할 필요가 현저히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이념적, 재정적 측면에서 약화된 복지국가는 자신의 역할과 권리를 점점 지방정부, 민간이나 기업에 이전한 결과 민영화와 분권화가 강화되는 반면 이들 사이의 부담이나 격차 그리고 책임을 둘러싼 혼란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 공동체의 약화와 개인화의 증대

유동적 근대사회에서 이루어진 구조 변화로 야기된 대표적인 인간관계의 변모는 바로 공적영역의 약화와 아울러 개인화(individualization)의 증가이다. 고체사회에서 개인의 선택과 행동을 제약했던 고정체의 해체는 개인을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했지만 반면 그간 개인의 선택과 판단을 지지하고 결과에 대해 집단적으로 책임을 감수했던 지지언덕의 파괴로 인해 모든 개인은 자기의 결정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고정체의 해체는 자율성의 확대를 낳았지만 개인적 선택과 집합적 지지망이 끊어지게 되어 개인이 져야할 부담은 커졌다. 약화된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사회는 집합적 공동체가 아니라 파편화된 개인들의 모임이 되고, 유동적 근대사회의 구성원들은 이제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외로운 주체로 내몰린다(홍지수, 2013).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도록 내몰린 결과 자기성찰, 자기평가, 자기관리 등의 흐름이 강해지고 이제 자기계발이 개인이 수행하여야 할 가장 숭고한 과제로 격상되었다. 고체 근대에 강고했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역시 가벼운 네트워크형으로 변모하고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접속과 단절이 가능해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만 손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윗주머니형 관계(top pocket relationship)’⁷⁾를 원하게

6) Bauman은 탈근대적 특성을 보이는 사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개념을 창안한다. 예를 들어 근대사회의 사회(society) 혹은 지역사회의 개념과 구별하기 위한 탈근대사회의 용어로 서식지(habitat)라는 용어를 창안하였다(Bauman, 1992). 서식지에서는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서식지에 거주하는 수많은 행위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자율적이지만 다른 행위자들을 포섭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존재 양상 역시 비결정적이고 유동적인 애매한 모습을 보인다. 필자들의 견해로는 현대 한국의 도시형 지역사회 거주지의 상당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전형적인 서식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들의 경우 공동생활의 외형적 형태를 보이나 서로 간에 지속적이고 상호 영향력 있는 유대관계를 찾기는 힘들며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지도세력이 확고하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7) 윗주머니형 관계는 지속적이고 공고한 관계가 가져올 무거움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필요할

된다.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불안하고 불확실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구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이고 고정된 만남에 대한 부담을 원치 않는 개인은 자신의 상황을 적절히 설명해줄 해석자(interpreter)로서의 전문가를 구하고 그 결과 개인적 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기도 한다.

(3) 관료주의와 관리주의의 강화

유동적 근대사회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복지국가가 약화되면서도 관료주의와 관리주의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현상이 등장한다. 이는 사회는 급속히 유동화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응은 고체근대의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유동적 근대사회에는 이러한 유동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시대적으로 부합하는 실천목표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은 오히려 이미 지나쳐온 고체 근대 시대의 전략과 수단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Smith, 2011). 유동적 근대에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절차의 중시, 감사기능의 강화, 역량의 강조, 사례관리 등에 대한 강력한 의존이야말로 목표달성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의식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근대적 기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상징한다(Houston, 2002: 6). 게다가 현저히 약화된 고체 근대 시대의 국가복지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역할의 상당부분을 민간부문이나 지방정부로 이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적 혼란과 유동성 증가에 대한 불안에 대해 관료적 규제와 규율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려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실 상황은 혼란스럽고, 애매모호하며 유연성이 난무하고 있는 반면 정치적, 조직적 대응은 이러한 복잡성을 제거하려고만 애쓰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강화되는 고체 근대적 규율인 관료주의와 전문주의가 사회구성원, 특히 국가기관의 관료적 통제에 노출되어 있는 전문가들의 도덕적 자율성과 성찰적 능력을 잠식해 들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실천현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전문가의 전문성에 대한 권위가 점차 약화되는 것만큼 역설적으로 전문가들의 도덕적 성찰성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고체 근대 시대에 작동하던 규율과 매뉴얼, 평가체계 등의 강화로 이러한 도덕적 자율성이 억압된다면 전문가들의 실존적 고통은 커져갈 수밖에 없고 이는 소진, 정신적 위기, 이직 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4) 윤리적 무관심과 규범성의 쇠퇴

개인의 자율화는 강화되지만 집합적 고정체가 약화되는 유동적 근대에서는 윤리와 도덕에 대한 무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인간행위의 윤리적 규제를 사회적으로 내재화했던 근대의 기획은 도덕적 책임이 개인으로부터 사회나 제도로 양도되는 현상을 낳는다. 그 결과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무관심이나 냉담이 증가하고 인간에 대한 공감성이 약화되는 도덕적 무관심(adiaphorization) 현상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향은 유동적 근대화가 되면서 더욱 더 가속화된다(Bauman, 1993). 뿐

때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잊주머니에 깊이 넣어둘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관계를 지칭하는 Bauman의 용어이다(이일수, 2005).

만 아니라 개인들 사이를 묶어주던 사회적 고정체가 점점 녹아내림에 따라 공공성 약화라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게 된다(이일수, 2005). 유동적 사회의 개인들은 공공성, 좋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 등과 같은 큰 정치의 문제에는 무관심하거나 회의적이 된다. 사회적 통제와 규율이 약화되면서 자율적 행위자의 개인화가 확대되고, 공적이익의 본질에 대한 무거운 논의와 담론이 회피되면서 사라져 버린 빈 공간에는 이제 가벼운 개인적 관심사로서만 채워지고 공적인물에 대한 사생활 등과 같은 가십성 이야기들이 사회적 화제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백승대, 2008).

그러나 급격한 유동화로 인한 윤리의 약화 혹은 공공성의 약화가 혼란과 불안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동적 근대 시대에는 도덕적 선택과 책임의 문제에 대해 개인 스스로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고체 근대사회에서 개별 주체들이 사회와 집단에 양도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도덕적 인식과 윤리적 성찰의 문제를 다시 직면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송재룡, 2000: 19-20). 다시 말해 불안, 불확실, 양가성 등과 같은 유동적 사회의 문제점들은 개인들로 하여금 자유, 자율성, 책임 등과 같은 도덕적 문제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객관적 논의와 비인격적 토대에 기초하여 구축되었던 보편 윤리라는 근대적 기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 주고 있다는 것이다(Bauman, 1993: 1994).

(5) 전문가와 지식인의 위상변화

유동적 근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전문가 혹은 지식인의 역할 또한 현저히 변화한다. 국가에 의한 보편적 사회질서가 공고하고 합법적인 권위체계가 온존했던 고체 근대 사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주로 입법가의 역할이었다. 근대국민국가와 노동과 자본의 결합체, 공고한 지역사회 등과 같이 사회전체를 규율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나 규칙에 대한 지지체가 강고한 고체 근대사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주로 입법가적 지식인(legislative intellectuals)의 역할에 가깝다(Bauman, 1987). 이들은 사회구성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고 이를 강제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국가의 시민과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위치와 그 속에서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확정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전문가의 주요 기능이였다면, 복지국가가 약화되고 사회전체를 관통하는 보편적 권위가 허물어지고 있는 유동적 근대사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해석가적 지식인(interpretative intellectuals)으로 변모된다.

해석자는 분명한 하나의 권위를 확정하고 지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정보와 설명을 제시하여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는 유동적 근대사회의 개인들이 깊고 강한 지속적 관계보다는, 자신이 필요할 때 적절히 만날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하고 이러한 관계 역시 강한 헌신(commitment)보다는 접속과 이탈이 자유로운 네트워크 형태의 만남을 선호하는 현상과 맞물린다. 따라서 직접적인 물적 서비스보다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상담이나 그들이 원하는 정보제공과 같은 해석적 서비스 형태가 주류화 된다. 여기서 당연히 전통적인 전문가의 전문적 권위는 약화되고 클라이언트의 권리는 강화되며 이러한 관계 역시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기 보다는 유동적이기 쉽다.

4. 유동하는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양상들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우만의 유동적 근대성 이론에 드러난 후기근대사회의 특징들이 한국 사회복지실천현장의 현상들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들 각 특징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는 현상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개념들에 따라 첫째, 후기 근대사회의 특징에 의한 '유동하는 사회복지현장과 시대적 복합성으로 인한 혼란', 둘째 소비주의의 등장과 전통적 복지국가의 쇠퇴로 인한 '사회복지실천에서 빈곤에 대한 비중 감소와 소비논리의 확대', 셋째, 공동체의 약화와 개인화의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실천 영역의 세분화와 문제해결의 개인화', 넷째, '관료주의와 관리주의의 강화에 의한 사회복지실천성의 약화', 다섯째, 윤리적 무관심과 규범성의 쇠퇴가 가져온 '사회복지 정체성과 윤리성에 대한 요청'의 순으로 분석을 제시하고 앞에서 유동적 근대사회의 특징의 하나로 지목된 전문가와 지식인의 위상변화는 이러한 전체 논의과정에 포함시켜서 논의할 것이다.

1) 유동하는 사회복지현장과 시대적 복합성으로 인한 혼란

한국사회도 최근 몇 십 년 사이에 신자유주의의 도입, 지구화와 이주의 확대, 사회적 위험의 증가, 통신의 발달과 같은 유동적 근대사회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이면서 한국사회복지실천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족 위기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보육과 노인부양이 주요 문제로 부각되었고, 외국인근로자, 탈북자, 국제결혼이민자의 등장과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복지분야가 등장해 왔으며, SNS의 발달이 사회적 거리를 좁히면서 공동체 여론과 가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기영·최명민, 2006; 윤홍식, 2010; 유소라 외, 2012). 국가가 관리하여야 할 사회적 위험의 새로운 등장에 따라 김영삼 정부의 삶의 질 향상,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동반성장, 이명박 정부의 희망복지와 통합관리, 박근혜 정부의 한국형 복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과 같이 정권의 복지정책 기조가 5년 단위로 바뀌고 그때마다 사회복지현장의 중점사업은 달라져야 했다(최옥채, 2012). 이와 같이 사회복지의 배경이 되는 사회구조나 복지의 핵심 문제들이 빠르게 유동하면서 정책의 지속성, 인력의 현장적응, 현장변화에 따른 교육 제도 및 내용 구성 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즉 한국 사회복지환경에서도 근대사회의 고체적 특성들이 용해되어 유동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빠른 유동화 속도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는 전근대의 고정체가 미처 용해되지 못한 채 근대와 탈근대의 유동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독특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사회복지실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주로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근대주의적 전문가 상(象)과 과학적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론과 기술들에 기반을 둔 전문적 역량, 이를 보증할 수 있는 학위와 자격 제도,

규범화된 지침과 매뉴얼, 효율성과 효과성에 기초한 평가기준 등은 대표적인 근대주의적 산물이다. 그러나 혈연이나 사적 관계에 의해 사회복지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횡령, 친인척 비리, 클라이언트 인권침해 등의 문제나(양옥경·최명민, 2010), 사회복지실천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복지인력에게 희생과 봉사를 당연시 하는 대중의 인식(최명민, 2011), 또는 점점 심각성을 더해가는 클라이언트 폭력의 문제를 합리적 제도가 아닌 사회복지사 개인의 대처에 맡기고 있는 상황(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 등은 아직 전근대의 부정적 측면이 잔존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근대적 폐해가 잔존하며 합리적 근대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 한국사회복지실천의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이미 근대주의적 속성을 극복해 보려는 움직임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교과과정에 해결중심접근 등 포스트모던적 관점의 실천이론들이 도입되고,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더 이상 과학적 지식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장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실천 지혜를 터득해 가려는 구성주의적 접근을 보이기도 하며(유영준, 2009a; 2009b; 이근무·김영숙, 2009; 이현주, 2012), 실천연구에서는 근대주의적 개념 틀을 대표하는 생태체계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극복해 보려는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다(우아영·김기덕, 2013; 최명민·김기덕, 2013; 김기덕 외, 2014; 최명민 외, 2014).

이렇듯 한국사회복지실천현장은 바우만이 언급한 ‘모던적 기획이 가진 한계’가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시대사회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한국 사회와 사회복지실천에 다시대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실무자들이 대처해야 할 위험도 더욱 복잡적이고 다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이러한 혼란 가운데 한국사회복지실천은 전통을 강화해야 할지, 새로운 것을 찾아나서야 할지 매우 혼돈스러운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최옥채, 2012).

2) 사회복지실천에서 빈곤에 대한 비중 감소와 소비논리의 확대

바우만이 유동적 근대사회의 주요 특징이라고 언급한 소비주의의 등장과 전통적 복지국가논리의 약화는 한국사회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은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의 형태가 실현된 적은 없으나 한국의 복지제도는 외형상으로는 유럽국가와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문진영, 2005) 최근에는 복지가 정치적 화두이자 선거이슈로 주목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복지국가이념은 체제와 관련된 위험한 논리로,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공격받기도 하고 복지논리는 경제논리에 의해 쉽게 좌절되곤 한다. 또한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의 주체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정부 간 복지예산의 편차가 심화되고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방정부의 저항이 정치적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극화와 사각지대의 문제는 계속 심화되어 왔고 그 결과는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생계형 자살과 같은 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단기간 안에 놀라운 경제적 발전을 이뤄왔지만 빈곤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실천은 더 이상 빈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따라 사회복지실천에 시장구조가 도입되면서 사회복지기관에도 고객지향의 기업화가 진행되어 사회복지실천관계 역시 고객 중심의 시장관계로 변질되고 빈곤층보다는 중산층이 사회복지실천

의 주 대상으로 강조되며 클라이언트의 주류화가 진행되어 왔다(김인숙, 2010).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빈곤에 대한 관심은 주로 정책적 차원에서 다뤄져 왔으며 사회복지실천은 상대적으로 빈곤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고 개인의 심리나 관계 차원에 집중함으로써 양극화라는 사회적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빈곤에 대한 실천은 생활시설 내 빈민들의 생존유지와 형식적 부업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본격적인 빈곤 대처를 위한 사회복지실천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남기철, 2006). 그 자리는 일반시민 대상의 교양 및 문화강좌로 채워지고 예비 생산인력이었던 빈민은 점차 바우처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이 사회복지의 외연을 확대하고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주의에 의한 시장논리가 사회복지의 본연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것으로 비판받기도 한다(김기덕, 2006; 최명민, 2007; 양난주, 2010).

이러한 한국사회복지실천현장의 최근 변화들은 바우처에 의해 제시된 후기 근대사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복지국가의 정립과 쇠퇴라는 유럽식 사회변동과 달리, 한국사회는 복지국가 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채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해 보려 했던 빈곤문제가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에도 소비논리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량한 소비자로서 더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있는 빈민에 대한 사회제도는 취약하고 이들을 돌봐야 할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화되면서 동시에 사사화(privatization)되고 있어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은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실천 영역의 세분화와 문제해결의 개인화

복지현장의 급변과 그로 인한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새로운 문제, 대상, 접근방식이 출현할 때마다 세포분열 하듯 끊임없이 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아동, 노인, 가족과 같은 분류 틀로는 담아낼 수 없는 새롭고 다양한 욕구들이 분출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 내부의 결속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최근 인접 학문 분야의 도전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간을 흔드는 도전들에 대해 사회복지의 구성원들 간 힘을 결집한 집단적 기획이나 유대보다는 분야별 대응 방식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유대관계의 용해는 유동적 근대사회의 대표적 특성이다(이일수, 2005: 14). 이는 교과목의 가짓수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다양한 학회와 협회들이 등장하고⁸⁾, 분야별 자격증 및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들이 모색되는 현상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⁹⁾

8) 아동복지학회, 노인복지학회, 청소년복지학회, 가족사회복지학회, 학교사회복지학회, 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의료사회복지사협회, 지역사회복지학회, 사례관리학회, 군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행정학회, 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장학회, 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국제사회복지학회, 기독교사회복지학회 등

9) 예를 들어 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외에 알콜중독분야의 자격 신설, 사례관리학회의 교육자 자격 규정, 의료사회복지와 학교사회복지의 자체 수련 및 자격제도 시행, 가족사회복지학회의 자격제도 모색 노력(시행되지 않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분화에 따라 분야별 정체성이 선명해질 것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날이 갈수록 사회복지 내적, 외적 경계는 모호해지고 공동체 속에서 동료들과 연대감을 느끼며 직업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위주가 팽배하면서 사회복지사를 지탱하게 했던 사명감이나 보람도 담보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는 반면 이러한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근대적 인식이나 처우는 지속되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사의 소진 문제가 불거지고 극단적인 연쇄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이러한 유동적 근대의 혼란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복지실천의 문제해결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던 노조의 결집력은 약화되고, 전문가의 책임보다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과 권리에 초점을 둔 당사자주의가 강조되며, 사회복지 전반에 클라이언트의 자기의사결정을 절대시하면서 절차주의를 강화하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다. 또한 가족해체, 공동체의 붕괴 등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나 제도적, 집합적 대응보다는 개인 내면 차원의 상담이나 교육, 정서적 프로그램 등으로 해결하려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⁰⁾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접근들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에 용이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거나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사회연대가 붕괴되고 개인화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다시 개인화된 해결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4) 관료제와 관리주의의 강화에 따른 사회복지실천성의 약화

한국사회복지실천에서도 유동성과 그에 따른 불안과 경계의 모호성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화, 유형화를 통해 유동적 상황을 고정해 보려는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유형화하려는 연구나(예 : 강흥구, 2006; 조성우, 2007 등) 현장 매뉴얼 및 지침 제작 등은 사회복지실천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들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지침이 평가도와 연결되면 그에 맞춰 성과를 산출해야만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실천가와 소속 조직의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절대시되곤 한다. 실제로 사회복지현장은 평가사업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평가는 평가 자체가 아니라 시설운동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평가업무와 지자체별 경쟁적 구도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유동철, 2012b; 이도형, 2012). 또한 프로젝트 형 공모사업이 일반화되면서 사회복지실천현장은 문제의 심각성이나 주민의 고통보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채택 가능성이나 그에 관한 성과창출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¹¹⁾

10) 예를 들어서 최근 우리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을 보면 자살 직전에 보이는 우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의 작동에 따른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작용하는 사회안전망 부재, 고령화, 농촌 공동화, 사회적 단절, 빈곤과 양극화, 학교폭력, 경쟁적 문화, 고용조건 악화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나 모순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움직임은 보이는 대신 의료적 모델에 따라 개인의 우울증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최명민, 2010). 한국사회의 자살문제에 대한 대응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이뤄지고 있다.

11) 학계와 실천계 공히 <프로그램개발과 평가>를 전공필수로 채택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중

이러한 성과위주의 사업과 평가들은 서비스의 책임성이란 측면에서 그 가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사회복지실천계를 지나치게 압도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의 가치가 지나치면 책임성을 묻는 주체에 종속되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자율성 감소, 과정보다 결과와 효과 중시, 반(反)빈곤 등 예방적 사업의 주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김인숙, 2005). 결국 바우만의 지적대로 유통하는 사회복지에 대해 고체 근대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일률적 기준적용이나 성과제일주의 등 부정적 의미에서의 근대성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또 다른 혼란과 좌절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렇듯 획일적 기준과 평가를 통해 현장을 통제하려는 관료제의 경향은 ‘관리주의(managerialism)’로 나타난다. 성과제일주의에 따른 관료제가 강화되고 현장의 유통성이 커지면서 관리의 기능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0년부터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도입했지만 도입 이후 사실상 4년간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지급액은 축소되고, 긴급복지 예산도 계속 감소해 왔다.¹²⁾ 결국 효율적 ‘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수급자를 발굴하기보다는 탈락시키는 규율의 기제이자 빅 데이터로 작동하면서 사각지대해소라는 안전의 명분은 유명무실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대표하는 것이 ‘사례관리’에 대한 강조 추세이다.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방법이다. 그러나 도입배경에 서구사회의 비용절감 목적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 그리고 개입 대상을 ‘사례’로, 개입방법을 ‘관리’로 부르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일정한 실천적 한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고 급격한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정부개입이 확대되면서 관리자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사례관리가 과도하게 일반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보이는 관료제나 관리주의는 국가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온존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는 유통적 사회에 대한 고체 근대적 대응으로서 사회복지실천의 지향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는 관리나 평가의 ‘대상’이 되고 사회복지실천은 더 이상 창의적인 ‘실천(praxis, practice)’이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한 강제적 ‘노동(labor)’이나 지침에 따른 기계적인 ‘작업(work)’으로 전락하기 쉽다.¹³⁾ 또한 이런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개혁적 아젠다를 제기하고 새로운 제도를 형성해 내기보다는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과 이들의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김인숙, 2010).

화 외, 2013).

12) 지난 4년간 20만 명 이상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수급이 중지되었고 약 75만명의 지급액이 삭감되었으며 긴급복지예산은 2010년 97.2%, 2011년 77.7%, 2012년 58.9%, 2013년 55.2%로 감소하면서 예산을 미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웰페어뉴스, 2013.3.19; 영남일보, 2014.3.26.).

13) Arendt는 삶의 필수재를 공급하기 위해 수행하는 노동이나 제작 차원의 작업과 구분하여, 표현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뤄지는 행위이자 기억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활동을 실천으로 개념화하였다(이진우·태정호, 1996).

5) 사회복지 정체성과 윤리성에 대한 요청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사회복지실천현장에는 윤리적 측면에서 전근대적 폐해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이 잔존해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대주의적 평가체계의 도입이 과도한 관료주의나 관리주의로 흐를 때 이는 또 다른 정체성과 윤리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율성을 상실한 전문가를 요구받게 될 때 이에 저항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가져오기 쉽고(김인숙, 2005) 신속하고 효과적인 일처리가 중시되는 환경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스스로 동기화되도록 기다리기보다는 실천가가 주도하는 문제와 역기능 처리가 우선시되어(박선영, 2013) 임파워먼트라는 궁극의 목적은 공허한 지향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¹⁴⁾ 따라서 최근 한국사회복지실천현장의 도덕성과 정체성 혼란은 전문직 차원의 자성과 윤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도했던 사회복지기관 윤리경영사업,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서 윤리교육의 의무화, 현장에서 계속되는 <사회복지 윤리와철학> 교과목에 대한 필수교과목 지정 요구(김기태 외, 2005; 정중화 외, 2013) 등이 그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만큼 현장 실무자들이 윤리적 혼란을 겪으며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뉴얼이나 지침의 개발, 평가지표의 제시, 자격기준 강화와 같은 근대주의적 방식으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이나 윤리성을 담보하려는 노력들은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유동적 근대사회에서는 윤리강령이나 실천지침을 충실히 준수하는 사회복지사만으로는 부족하며, 현대사회의 현실이 가진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성찰적이며 도덕적으로 적극적인 실천가(reflexive and morally active practitioners)'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Smith, 2011)에 귀 기울여야 하겠다.

5. 결론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본질은 근대성의 산물로서 근대적 공간과 맥락에 자리한다. 즉 근대사회의 사회복지실천은 전근대 시대의 돌봄 방식이 용해되고 해체된 빈자리에, 개별인간의 정체성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실제적 합리성과 규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적 합리성이 적절한 긴장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은 안전과 규율의 긴장,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통제의 균형 등의

14) 실제로 최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회복지사의 다짐'이라는 영상은 이러한 우려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http://sasw.or.kr/zbx/m/movie_gallery/367865). 이 영상에 나오는 사회복지사는 세 가지 다짐 중 '일주일 1회 이상 지역 나가기'를 외친다. 그만큼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행정업무 속에서도 클라이언트와의 거리를 좁히려는 의식적인 저항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명칭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바우만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의 근대성은 고체적 근대에서 유동적 근대로 이행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결합과 국민국가에 근거한 복지체제를 대표적 고정체로 삼아 유지되던 고체 근대시대가 자본의 초국적 이동,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 소비중심사회의 등장, 전통적인 유대기반의 파괴 등으로 급격하게 유동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동적 근대화의 시기에는 고체 근대시기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사회구조, 인간관계, 사회적 위험, 전문직의 역할 등이 창출되는데 사회복지체제 역시 이러한 유동화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바우만의 이론체계가 한국사회복지실천의 변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기존 관점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것과 한국사회와 한국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도 유동적 근대화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구보다 훨씬 빠르고 격렬한 신자유주의의 흐름,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성 그리고 발달된 정보통신기술과 무섭게 해체되어 가는 사회적 연대와 공공성 등은 한국사회복지실천 영역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유동화의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회자체는 고체근대에서 유동적 근대로 이동하고 있어 이미 유동적 근대사회의 위험이나 문제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고체 근대 시대의 전략과 수단을 더욱 강화하려는 사회적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전략은 과도한 행정적 관리화, 평가와 표준화 강조로 인한 목적 전치를 가져오고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간 관계를 유리시킴으로써 사회복지조직과 실천가들에게 사회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전문직으로서의 도덕적 자율성의 감소, 소진의 심화와 정신적 위기증가 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동화의 물결 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이 고유의 자율성을 견지하며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까? 이는 유동하는 사회에선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체성을 시공간의 변화 속에서도 스스로의 실체를 유지하는 자신에 대한 자가 인식과 사회적 평가의 일치상태라고 본다면(김기덕, 2014), 정체성이야말로 유동적 근대성의 물결 속에서도 스스로를 유지시켜 나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유동적 근대의 사회복지실천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 방향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실천은 고체적 근대사회가 아니라 유동적 근대사회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자신의 이념, 지식, 기술을 조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실천이 그동안 견지해온 미시성과 심리학적 편향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유동적 근대사회의 구조와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특성과 한계를 기반으로 유동적 근대의 사회적 변화에 조응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도 유연한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을 규정해 가야 할 것이다. 둘째, 유동적 근대사회에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고체 근대의 전통적 질서유지와 규제 압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고체 근대의 국가중심 관료체제의 확대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본의 침투에 대해 적절하게 저항하는 한편 실천 자신의 자율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기본 방향 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자율공간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동화의 물결 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을 지탱하고 고정할 수 있는 주요 요소에 대한 합의와 이를 위한 이론적, 실천적, 교육적 측면의 변화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 이론적 토대와 그에 근거한 현상분석을 제시한 기초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흥구, 2006, “사회복지사의 직무특성과 1급과 2,3급의 직무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1): 209-235.
- 김기덕, 2006,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의사소통행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4): 119-139.
- 김기덕, 2013, “사회복지철학체계의 모색-경계와 사이에서 성찰하는 실천 철학”, 『추계연합학술대회 자료집』, 117-144.
- 김기덕, 2014, “인간서비스 전문직의 행복과 정체성-사회복지전문직을 중심으로-”, 『2014 한국사회복지시설·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71-187.
- 김기덕·김성천·박승희·최명민·이은정, 2014, “노자도덕경을 통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재조명”, 『동양철학연구』, 77: 7-41.
- 김기태·양옥경·홍선미·박지영·최명민, 2005, “한국사회복지실천교육모델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1(2): 81-103.
- 김동국, 2008, “동양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한국 사회복지의 성격 전환”, 『한국민족문화』, 32: 425-454.
- 김미옥·장수미·정익중·전종설·심정원, 2013, “사회복지실천 교육의 현황과 전망”, 『추계연합학술대회자료집』, 67-98.
- 김성천, 2010, “가족복지실천에서의 관계”,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 27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5-14.
- 김인숙, 2005,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비판사회정책』, 20: 119-152.
- 김인숙, 2010, “바우처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전문직 정체성의 변화와 그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62(4): 33-58.
- 김형준·한동우, 2010, “사회복지의 대안적 이론체계로서의 사회생태주의”, 『비판사회정책』, 29: 91-123.
- 남기철, 2006, “사회양극화와 사회복지실천”, 『비판사회정책』, 22: 71-116.
- 노충래, 2011, “다양성,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사회사업실천이론의 성찰”,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한일심포지움 자료집』, 115-144.
- 문진영, 2005, “빈곤 레짐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1): 245-269.
- 박선영, 2013, “사회복지실천의 임파워먼트 접근에서 온정주의의 침투와 공존 : 딜레마와 대안”, 『미래사회복지연구』, 4(1): 107-135.
- 백승대, 2008, “현대사회를 보는 바우만의 시각: 탈근대성과 유동적 근대성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6(1): 277-301.
- 손경미, 2013, “바우만의 액체근대론과 백의 성찰적 근대화론 비교 연구: 개인화, 위험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22(1): 139-174.
- 송재룡, 2000, “바우만의 포스트모던윤리론: 합의와 한계”, 『현상과 인식』, 24(4): 15-36.
- 양난주, 2010,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행위자간 관계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4): 79-102.

- 양옥경·최명민, 2010, "사회복지기관 윤리경영 자가점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2): 53-92.
- 영남일보, 2014,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그물망 체크, 유연한 운용이 어렵다", 2014년 3월 26일.
- 우아영·김기덕, 2013, "사회복지패러다임으로서 비판적 실재론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44(2): 461-493.
- 웹페어뉴스, 201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복지사각지대 더 늘어나", 2013년 3월 19일.
- 유동철, 2012a, "지역복지실천의 새로운 모색: 조직화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09-234.
- 유동철, 2012b, "사회복지시설평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A4 복지에서 공생평가로", 공정경쟁과 사회안전망 포럼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 16-36.
- 유영준, 2009a, "사회복지사의 반성적 사고수준과 사회복지실천기술의 활용정도", 『사회복지연구』, 40(3): 337-362.
- 유영준, 2009b, "사회복지사의 반성적 실천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40(4): 515-540.
- 유소라·김정민·고건혁, 2012,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공증과 가치 확산: KAIST 트윗당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전기 사회학대회 자료집』, 1083-1093.
- 윤명숙, 2013, "사회복지사의 정긴건강 현황과 대책",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5-44.
- 윤홍식, 2010, "우리는 왜 지금 연대를 필요로 하나: 친복지연대를 꿈꾸며", 『시민과 사회』, 16: 28-44.
- 이근무·김영숙, 2009, "사회복지사들의 실천지식의 본질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4): 217-241.
- 이기영·최명민, 2006, "사회복지 전문인력 개발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교육』, 2(1): 1-52.
- 이도형, 2012, "사회복지시설평가, 경쟁이 끝이 아닌 연대에 의한 사회복지 질적 성장의 출발선", 공정경쟁과 사회안전망 포럼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 47-51.
- 이봉주, 2013, "전문가주의와 수요자중심서비스의 갈등과 조화: 클라이언트, 고객, 서비스이용자",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71-90.
- 이유선, 2007, "소비문화와 자율성의 문제", 『사회와 철학』, 14: 201-228.
- 이수영 역, 2004, 『새로운 빈곤』, Bauman, Z., 1998, 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서울: 천지인.
- 이일수 역, 2005, 『액체근대』,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서울: 강.
- 이진우·태정호 역, 1996, 『인간의 조건』,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서울: 한길사.
- 이현주, 2012,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전문직 정체성을 찾아가는가?",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원희, 2007, "타자성과 정의: 지그문트 바우만", 『한국사회학회 전기 사회학대회 자료집』, 617-634.
- 정종화·김제선·김옥진·김혜성·박영란·전석균, 2013, 한국사회복지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2013 국회 사회복지교육정책세미나 자료집』.
- 조성우, 2007, "사회복지사 훈련프로그램의 내용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 훈련에 대한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59(2): 115-142.
- 최명민 역, 2007, 『임파워먼트와 사회복지실천』, Adams, R., 2000, Social Work and Empowerment, 파주: 나남출판.

- 최명민, 2010, “문학에 투영된 자살의 심리사회적 이해 : <광장> 과 <숲속의 방>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29: 163-203.
- 최명민, 2011, “사회복지실천을 둘러싼 전문가-이용자 관계의 전근대적 측면과 대안적 실천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최명민·김기덕, 2013,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을 통한 임파워먼트의 재해석: 통합적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학』, 65(1): 103-130.
- 최명민·박승희·김성천·김기덕·이은정, 2014, “노자도덕경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관계론의 탐색”, 『한국사회복지학』, 66(1): 139-162.
- 최명민, 2014, “유동적 근대사회에서 사회복지실천의 본질과 성찰성”,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189-217.
- 최성재·조홍식·한인영·김경미·이영분·윤현숙·유수현·김성천·최혜지, 2013, 『한국사회복지실천의 고유성』, 서울 : 집문당.
- 최옥채, 2012, “사회복지실천대안모색: 현실파악과 사례분석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35-274.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실태 및 안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홍지수 역, 2013,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Bauman, Z., 2001, *The Individualized Society*, 서울 : 봄아필.
- Abrahamson, P., 2003, “Liquid modernity: a Bauman perspective on contemporary society”, Conference of Social Work in a Future Europe, Copenhagen.
- Bauman, Z., 1987, *Legislators and Interpreters*, Cambridge, UK : Polity press.
- Bauman, Z., 1992, *Intimation of Postmodernity*, Oxon, UK : Routledge.
- Bauman, Z., 1993, *Postmodern Ethics*, Oxford, UK : Blackwell.
- Bauman, Z., 1994, *Alone Again: Ethics After the Age of Certainty*, London : Demos.
- Blackshaw, T., 2005. *Zygmunt Bauman*, Oxon, UK : Routledge.
- Cantell, T., and Pedersen, P., 1992, “Modernity, postmodernity and ethics -An interview with Zygmunt Bauman”, *Telos*, 21 : 133-144.
- Ferguson, H., 2004, *Protecting Children in Time*, Hampshire, UK : Palgrave.
- Ferguson, H., 2008, “Liquid social work: Welfare intervention as mobile practice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8 : 561-579.
- Garrett, P., 2012, “From ‘solid modernity’ to ‘liquid modernity’? Zygmunt Bauman and social work”,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2 : 634-651.
- Healy, K., 2005. *Social Work Theories in Context*. New York, NY : Palgrave Macmillan.
- Houston, S., 2002, “Beyond the Iron Cage of Bureaucracy: hyperrationality and social work”, *Social Work and Social Science Review*, 9(3): 5-22.
- Hugman, R., 2003, “Professional values and ethics in social work: Reconsidering postmodernism”,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3(8): 1025-1041.
- Kondrat, M., 2002, “Actor-centered Social Work: Re-visioning ‘person in environment’ through a critical theory lens”, *Social Work*, 47(4): 435-448.
- Lee, R., 2005, “Bauman, liquid modernity and dilemmas of development”, *Thesis Eleven*, 83: 61-77.
- Saleebey, D., 1996, “The strength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Extension and cautions”, *Social*

Work, 41: 296-305.

Smith, M., 2011, "Reading Bauman for social work", *Ethics and Social Welfare*, 5(1): 2-16.

Thompson, N., 2005, *Understanding Social Work: Preparing for Social Work*, Hampshire, UK : Palgrave.

Thompson, N., 2010, *Theorizing Social Work Practice*, Hampshire, UK : Palgrave.

Wakefield, J. C., 1996a, "Does social work need the eco-systems perspective? Part 1. Is the perspective clinically useful?", *Social Service Review*, 70(1): 1-32.

Wakefield, J. C., 1996b, "Does social work need the eco-systems perspective? Part 2. Does the perspective save social work from incoherence?", *Social Service Review*, 70(2): 183-213.

Webb, S., 2006, *Social Work in a Risk Society*. Hampshire, UK : Palgrave.

An Analysis of Liquidity of Social Work Practice in Korea through Bauman's Theory of Modernity

Kim, Giduk

(Soonchunhyang University)

Choi, Myungmin

(Baekseok University)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ocial work can be summarized as multiple complexities and ambiguities not only in ideological but in practical aspects. Although they have long been considered as a unique feature of social work as one of representative human service professions, the extent of such complexities are now reaching the culmination enough to raise the questions about the very nature of social work practice. This study aims to analyse such ambiguities and complexities around the field of social work in a systematic way with the theory of liquid modernization, a creative framework for modern society, coined by Zygmunt Bauman who is now considered as one of the leading sociologists and thinkers. The study shows clearly that social work in Korea is nowadays entering the phase of liquid modern society and specific features of liquidity of modern society such as consumerism, privatization, corruption of publicity etc are founded in the areas of social work. To make it worse, social workers are thinking about the anachronical response to this flow of liquidity by selecting the strategies useful in the solid modern era, not in the liquid one.

In this context, the study suggests that social work practice has to prepare to adequate measures to secure its own autonomy and sustain genuine identification from the ruthless melting power of liquid modern society.

Key words: Bauman, social work practice, liquid modernity, liquidity, identification

[논문 접수일 : 14. 07. 16, 심사일 : 14. 09. 01, 게재 확정일 : 14. 10. 29]